

한우안테나 - News

◎ “농민생존권 보장하라”

전국농민연대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와 대학로에서 ‘고이경해열사 정신계승·우리농업 사수·쌀지키기·농민생존권 쟁취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농정현안 해결을 위한 10대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이날 여의도 대 회에서 10만여명(경찰 추산 7만여명)의 농업인들이 ‘농민생존권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한·칠레협정 비준 ‘초긴장’

내달초 국회처리 예상 ... 농민반응 ‘촉각’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17일 자유무역협정(FTA)지원특별법을 상임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계기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농민연대가 19일 대규모 농민대회를 열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추진 중단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이후 재논의’를 촉구하는 한편 비준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내년 총선때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해 비준안 처리 여부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12월1~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비준안 처리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자민련 등 4당도 비준안에 찬성한다는 당론은 정하지 않았지만 의원들의 각자 판단에 맡긴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수적으로 우세한 도시지역 국회의원들이 비준안 찬성에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민신문 11월21일자】

◎ 소 브루셀라병 예방접종 ‘논란’

농림부는 올 들어 브루셀라병이 젓소뿐 아니라 한우에도 집단적으로 발생하자 1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추가 방역대책을 설명하는 한편 예방접종 시행에 대한 농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낙농육우협회 조옥향 여성분과위원장은 “브루셀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규모 한우농가도 감염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방백신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후에 접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선 한우협회 부장은 “원칙적으로 예방접종을 반대하는데 특히 축산물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예방백신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백신의 안전

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한편 살처분 정책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브루셀라병 차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브루셀라 예방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예방접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브루셀라병이 발생할 경우 양성축은 살처분하고, 발생 농장의 소는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거나 도태를 권고, 살처분 보상금 및 도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민신문 11월21일자]

◎ 출하량 급증 한·육우 하락

소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10~15일) 한우는 전주 대비 18% 증가한 724마리가 출하돼 지육 1kg당 평균값이 400원 하락한 1만4,615원을 기록했으며, 육우는 764마리가 출하돼 120원 하락한 6,408원에 거래됐다.

젖소는 전주 대비 11% 증가한 168마리가 출하돼 평균 3,766원을 기록했다. 18일 품종등급별 경락값은 한우의 경우 거세 A1등급이 1만7,151원, 거세 A2등급이 1만5,702원, 비거세수소 A3등급이 1만2,957원을 기록했다.

육우는 거세 B2등급이 6,989원, 거세 B3등급이 6,191원, 비거세수소 B3등급이 5,931원을 기록했다. 최근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출하물량이 급증하면서 젖소를 제외한 한우와 육우 모두 약세장세를 보였다. 출하물량이 계속 증가하면 큰 폭의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소값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농민신문 11월21일자]

◎ 한우능력 평가대회서 종합우승(충북 청원군 도암농장 이재호대표)

“한우농가는 번식우 및 고급육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말하는 이재호(도암농장·충북 청원군 오창면 도암리) 사장.

이 사장은 지금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한우인 중 하나이다. 바로 제6회 전국 한우능력평가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재호 사장은 청주농고 축산과를 졸업, 축협에 근무를 하다 97년부터 송아지 20두로 시작해 현재 건평 1천평, 축사 3백50평에 번식우 30두, 비육 80두 등 모두 1백10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농장에는 비가림 개방식 우사 2동에 환기팬, 물자동급이기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암송아지는 밀소로 키우고 황송아지는 6개월 경 거세해 7백kg까지 비육되는 27~8개월령에 출하하고 있다. 연간 출하두수는 70여두이며 오창번식우 단지에서 연간 20~30두를 5개월령에 입식, 입식후 20일 정도 경과하면 유허거세를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이 사장은 특히 한우계획번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축산기술연구소의 도움으로 봄철인공수정을 통해 번식우를 한번에 분만하고 있다. 여기에는 호르몬처리에 의한 우량정액을 공급한다는 설명.

[축산신문 11월19일자]

◎ 젖소에 한우 정액 수정 사후관리 '시급'

젖소에 한우정액을 수정시켜 생산한 껌정소(F1)가 번식우로 이용될 경우 한우 개량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와 축산기술연구소 등 9개의 가축개량기관은 지난 8일 축산기술연구소 성환중축부에서 간담회를 갖고 가축개량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지재학인공수정사협회장은 “젖소에 한우정액을 인공수정해 태어난 F1을 2대 이상 한우정액으로 교잡할 경우 모색이 한우와 거의 흡사해 한우와 혼란이 야기되고 한우개량에도 역행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홍보를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껌정소(F1)의 경우 암수 모두 비육만 하고 번식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퇴교배 등으로 인해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대 이상 되면 우시장에서 한우로 거래될 수 있으며 이를 구입해 번식우로 이용할 경우 젖소의 모색과 비슷한 소가 태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오섭축산연양돈과장도 껌정소(F1)로 인해 30~40년 개량해온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과거 일본의 경우도 난교잡을 정리하느라 애를 먹은바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호경전국한우협회장은 낙농산업이 원유가 잉여되고 있고 젖소 송아지와 껌정소(F1)과의 가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2대 이상 넘어갈 경우 한우와 비슷해 유통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11월12일자]

◎ 블루팅병 美産생우 파장 확산

“외래질병 전파하는 미국산 수입 생우를 즉각 반송하라!”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에 이어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최준구)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건태)가 지난 8일 일제히 성명을 통해 블루팅 병이 발견된 미국산 생우를 반송 조치하라고 촉구하는가 하면 전국한우협회 회장단도 지난 10일 농림부를 방문하고 미국산 생우를 반송조치하지 않는데 대해 항의하는 등 블루팅병 미국산 생우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전국한우협회 회장단은 지난 10일 농림부를 방문하고 블루팅병이 수차에 걸쳐 발견되어 외래질병의 유입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소해면상뇌증의 우려까지 있는 미국산 생우를 즉시 미국으로 되돌려보내지 않고 있는데 대해 항의했다.

[축산신문 11월12일자]

◎ 배합사료값 인상론 '고개'

요즘들어 배합사료업계가 깊은 시름에 잠겨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불황의 장기화에다 식물성 박류·국제곡물가·국제해상운임료의 급등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배합사료값 인상설이 술술 피어오르고 있지만 축산경기가 바닥이다보니 사료업계 입장만을 고려해 선뜻 인상할 수도 없는 처지라서 시름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이와 관련 배합사료업계 관계자는 사료값 인상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할 수 없는 만큼 흡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흡수해보고 그래도 안될 경우 사료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료값 인상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양축농가의 입장을 고려,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으로 상생의 원칙에 입각해서 값 인상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 관계자는 사료업계가 처한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그러나 현재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사료값 인상을 흡수하고 특히 사료값을 인상 하지 않는 대신 DC폭을 줄여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신문 11월10일자]

◎ 수입된 생우를 6개월 동안 국내에서 사육한 후 자국산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와 같이 생우를 수입하고 있는 일본이 3개월 이상 국내서 사육 후 국산 소라고 표시할 수 있는 특례 중단을 검토하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술정보화 담당관실에 따르면 최근 일본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합동회의를 통해 수입생우 국산 소 표시는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고 3개월 사육으로 육질에 영향을 줄 수 없어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는 것.

또한 향후 일본에 수입된 생우를 도축할 경우 사육기간이 가장 길었던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토록 하는 등 사실상 수입생우에 국내산 표시 불허를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는 “수입생우에 자국산 표시 중단여부는 생우수출국과 수입국이 상호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히고 “차후 일본이 수입생우에 대한 국내산 표시불허 방침을 결정할 경우 우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어민신문 10월27일자]

◎ 한우 암소값 500만원 돌파

산지 한우 암소값이 17일 사상 최고치인 500만원을 돌파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생체 500kg 기준 한우 암소값이 2001년 10월 400만원을 넘어선 뒤 올 1월 460만원, 5월 488만원, 10월17일 502만6,000원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후 21일엔 496만8,000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큰 수소와 송아지값은 17일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500만원대로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큰 수소값은 지난 5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7월 393만4,000원, 10월17일 406만4,000원, 21일엔 426만1,000원까지 올랐다.

송아지값도 덩달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암송아지는 21일 현재 348만1,000원, 수송아지는 265만5,000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암소값 강세 요인을 암소의 사육 마릿수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데다 농가의 번식의욕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암소값 상승은 최근 들어 거세우 공급이 줄면서 거세우 대체용으로 암소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 수도권외의 고급 요식업소 등지를 중심으로 암소고기 소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것.

[농민신문 10월24일자]

◎ 전남도 농업인대상에 민음농장 류호진씨 선정

2003년도 축산부문 전남도 농업인대상에 민음농장 류호진씨((44·전남 영암군 덕진면 백계리)가 선정됐다.

류씨는 지난 84년 한우 10마리로 한우사육을 시작, 소 값 폭락과 IMF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오직 한우사육에 열정과 젊음을 바쳐 현재 한우 8백여두를 사육하고 있다.

특히 지난 95년에는 마을 30대 젊은 청년 7명과 뜻을 모아 '민음한우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2천3백여두 규모의 한우축산단지를 조성해 매실부산물외의 사료화로 고급육을 생산하여 '매력한우'라는 자체브랜드를 개발 유통함으로써 축산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축산신문 10월22일자]

◎ 자조금 대의원 선출 신중기해야

남호경 한우협회장, 회장단회의서 의견제시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16일 농협 안성교육원 2층 회의실에서 회장단회의를 갖고, 한우자조금과 미국산 생우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남호경 회장은 "한우자조금 문제는 한우협회의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대의원 선출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로서는 대의원 선거를 위한 정족수(농가의 1/2, 두수의 2/3)를 충족시키기 힘든 상황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도지회장들도 이에 공감하고 향후 대책으로 한우자조금의 필요성에 대한 농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각 시·군 지부장들에게 선거인 명단을 발송해 선거 참여를 권유하기로 했다. 대의원 선거를 해야하는 한우 농가들 대부분이 벼농사도 함께 하는 점을 감안해 선거날짜를 휴농기간인 내년 2월초순경으로 연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22일 경 국내 도착 예정인 850두의 미국산 수입생우에 대해서는 한우로 둔갑 판매되는 것만 집중 단속하면 수입업자들 스스로 생우 수입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보고 둔갑판매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한우로의 둔갑판매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유통감시단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축산신문 10월20일자]

◎ 한우조합, 활발한 사업 '기지개'

충남·대구경북·전북·충북이어 5번째 조합 대전충남 설립인가 추진

한우조합이 5개로 늘어나면서 한우협회와 함께 한우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우 조합은 현재 충남한우조합과 대구경북한우조합, 전북한우조합, 충북한우조합 등 4개의 한우전문 축종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5번째 조합인 대전충남한우조합이 지난 8월 창립총회를 마치고 현재 설립인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대전충남한우조합이 인가를 받게되면 한우조합연합회의 설립을 위한 5개조합의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된다.

【축산신문 10월15일자】

◎ 광우병 발생국 소 부산물, 불법유통 차단 '속수무책'

냉동창고 봉인조치 관리 허술, 유통업체도 자발적 폐기 외면

지난달 광우병 관련 캐나다산 곱창 국내 불법유통에 이어 최근 일본 광우병 파동으로 통관 금지된 우족과 뼈가 불법유통되는 사건이 발생, 근본적인 차단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본 광우병 발생으로 통관이 금지돼 창고에 보관중이던 소뼈와 우족 117톤을 특정 유통업체가 헐값인 kg당 300~400원에 구입한 후 이를 운송도중 빼돌려 kg당 3000~3500원을 받고 도·소매상에 처분했다는 것.

특히 적발된 유통업체는 세관과 검역원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통관 금지된 내용물을 보관 중인 컨테이너에서 내용물을 빼돌린 뒤 같은 번호의 봉인을 붙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축산물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시중 냉동창고에 형식적인 봉인조치로는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가 폐기조치를 내려도 유통업체들은 구매비와 폐기처리비 이중부담으로 자발적 폐기를 꺼린다”고 밝히고 “광우병 발생관련 폐기처분이 내려진 수입물량에 대한 보다 강력한 안전보관장치 및 봉인장치 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어민신문 10월16일자】

◎ 수입생우 830여두 판로확보 고심

한우협 '둔갑판매 방지위해' 강경대응 방침

◇ 호주산 수입생우는 지난 1월 전북지역에 입식되어 7개월째 사육되고 있다. 수입생우의 출하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판로확보가 안돼 일반 정육점으로 유통될 경우 한우로 둔갑판매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올 3월 전북지역 농가에 분양된 수입생우 830여두의 출하시기가 임박해 오는 가운데 아직까지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판로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생우가 유통업자에 의해 투명하게 유통되지 않고 일반 정육점 등으로 풀려나갈 경우 한우로의 둔갑판매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쇠고기 유통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과 이에 대해 한우협회 측에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뜻을 밝히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수입생우 사육업자로부터 생우를 유통시켜 달라는 주문을 받

았으나 현재 유통되고 있는 수입생우의 경우 지육이 450kg이상 크고 특히 등지방이 20~30mm로 국내산 육우에 비해 훨씬 두꺼워 정육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으로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지역의 수입 생우 830여두는 지난 1월 26일 국내에 도착되어 이중 1두에서 블루팅 항체가 발견되어 살처분되었으며 40일 추가검역을 받은바 있다. 이들 생우는 전북 진안군 상전면과 부귀면에 410두, 무주군 설천면과 안성면에 420두가 입식되어 7개월째 사육되고 있다.

[축산신문 10월15일자]

◎ **황의동조합장(충북한우조합)** - 수입육과 시장경쟁위해선 한우 광역 브랜드화 절실

개방화시대에서 수입 냉장육 쇠고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질 고급화와 한우 브랜드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충북한우조합은 관내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청풍명월'이라는 한우 광역브랜드를 만들었으며 암소 중에서 선발된 종빈우와 우수한 정액으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는 등 한우 밀소 기반을 차근차근 다지고 있다.

오는 2007년이면 명실상부한 최고의 충북 한우 광역브랜드육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결코 서두르지 않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서 최고의 한우 브랜드가 되도록 한우농가들과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농민신문 10월11일자]

◎ **'안동한우아가씨' 3명 선발** - 서울대 재학중인 김소영양 진 당선



안동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3명의 '안동한우아가씨'가 선발됐다.

안동한우발전위원회(위원장 황화섭)는 지난 1일 KBS안동방송국 공개홀에서 축산관련인과 일반 방청객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8회 안동한우아가씨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안동한우 홍보사절을 선발했다.

이날 선발대회에는 예선을 거쳐 모두 17명의 아가씨들이 본선에서 심사를 받은 결과 영예의 미스 안동한우 진(상금 3백만원, 트로피)은 참가번호 11번 김소영양(19)이 차지했다.

부대행사로 안동 한우고기 시식행사와 한우사진전(45점)이 열렸으며 안동한우아가씨들은 지난 2일 시내를 카퍼레이드를 했다.

[축산신문 10월9일자]



◎ 지금 울산은 불고기 냄새로 가득~



2003 봉계한우 불고기 대회는 각지에서 몰려든 관람객들로 성황을 이뤘다.

“역사의 참맛속으로! 어울림의 축제속으로!”란 슬러건을 갖고 울산시 울주군이 주최하고 봉계한우 불고기 추진 위원회(회장 : 김성환)가 주관한 '2003 봉계한우 불고기 축제'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에 걸쳐 불고기 단지 내 고수부지 일원에서 연인

원 5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8년전 경주와 언양을 잇는 35번국도가 확장 되면서 고기맛 소문이 퍼지자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들었고 고기집도 빠르게 늘어나 지금의 봉계한우불고기단지가 형성됐다. 부산, 대구, 경주등지에서 구경은 도시인들은 세계 소요리의 전시와 봉계한우 홍보관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축제 기간동안 소비된 한우는 약 50여두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민신문 10월09일자]

◎ 축산업 등록제 미참여농가 모든 정책사업 대상제외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을 현행과 같이 지원하되, 등록을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친환경직불제 등 신규사업도 등록제 참여농가에 한해 지원된다.

농림부는 축산업등록제는 선진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이력제, 농가별 가축방역관리 시스템 및 친환경직불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만큼 "등록농가에는 인센티브, 미등록농가에는 패널티"를 각각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는 불가 방침이지만 무허가 축사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농가불편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축산신문 9월27일자]